



히딩크 용병술로 개혁 서두르는 '서울 중부지회'

서울의 중심은 한국의 중심

서울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역사이듯 서울 중부지회의 역사는 (사)대한제과협회 전체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한다. 중부지회는 중구와 종로구가 힘을 합하고 여기에 다시 용산구가 힘을 더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루게 됐다. 선배의 연륜과 후배의 패기를 조화시킨 히딩크식 용병술로 개혁에 나선 서울 중부지회를 들여다본다.

글:김미선 기자 · 사진:전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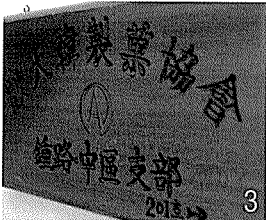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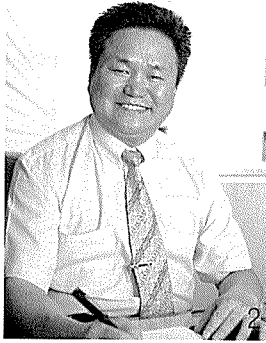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참여정부의 신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해 관습법을 들어 위헌을 판결했다. 서울은 우리 역사에서 오랫동안 수도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에게 '수도는 서울'이라는 사실이 하나의 관습처럼 통할만큼 중요한 의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뜻이다. 서울 중부지회는 중구·종로구·용산구를 아우르는 서울의 중심이면서 더 나아가 한국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알짜배기' 지회다.

서울의 역사가 곧 우리나라 역사이듯 중부지회의 역사는 곧 전체 (사)대한제과협회의 역사이자 우리나라 제과업계의 역사와 뿌리를 같이한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잘 나간다는 제과점은 모두 서울에 자

리했고 그중에서도 중부에 모여 있었다. 지금은 시절이 바뀌어 많은 자영제 과점들이 아예 문을 닫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강남이나 신도시로 옮겨갔지만 우리나라 제과업계의 중심으로서 상징적 의미는 여전하다.

30·40·50 다양한 세대 조화이룬 지회 조직

서울 중부지회는 균형이 잘 잡힌 지회다. 중구와 종로구가 힘을 합하고 여기에 다시 용산구가 힘을 더하면서 지금과 같은 모습을 이루게 됐다. 전통과 현대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서울의 심장부답게 중부지회 또한 풍부한 지회운영 경험을 자랑하는 50대는 물론 조직에 새바람을 일으킬 주



1 중부지회는 '과우회'를 통해 기술과 경영에 관한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요즘 서울 중부지회의 최대 현안은 도심 공동화 현상에 따른 지역제과점의 부진이다. 중부지회는 과우회에서 나온 의견과 아이디어를 지회 운영에 심분 활용한다.
 2 서울 중부지회 유경오 신임 지회장.
 3 중부지회의 역사와 전통을 한눈에 보여주는 현판. 중부지회는 올해로 40년 된 한국 제과업계의 산 증인이다.
 4 중부지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에도 두 팔 걷고 나서고 있어 여기저기서 감사의 뜻으로 전달한 상패와 트로피가 넘쳐난다. 올해 4월에는 (사)한국농어인협회 용산구지부에 롤케이크 120상자를 전달했다.

인공으로 주목받는 개혁적인 성향의 3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자랑한다. 두 세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40대'도 든든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히딩크 감독이 A매치 경험이 풍부한 기존 선수와 기술은 조금 부족해도 패기 하나만큼은 하늘을 찌르는 신예 선수들 사이의 균형을 적절히 조화시킴으로써 한국 축구를 월드컵 4강에 올려놓았듯 중부지회 또한 과거의 화려했던 명성을 되찾기 위한 새로운 카드로 '신구(新舊)의 조화'를 내놓은 것이다. 중부지회의 조직도에는 20년 이상 중부지회에 몸담아 온 다섯 명의 고문을 비롯해 지회 운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곱 명의 상임위원과 기꺼이 그들의 손과 발이 돼주는 젊은 이사진 열 세 명의 이름이 빼곡하다.

중구지회의 히딩크는 올해 4월 제39차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유경오 지회장. 그는 왕년에 처음 맡은 용산지회를 전국 최우수 지회의 반열에 올려놓은 소문난 지도자다. 최근 몇 년 동안 매출부진과 원부재료값 상승으로 수많은 회원업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부지회는 강력한 그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희망의 씨앗을 한 톨 한 톨 싹 틔울 토양을 마련하려고 한다. 이번에 함께 선출된 세 명의 젊은 부회장들도 요즘 유 지회장과 함께 밤낮으로 머리를 맞대고 중부지회를 다시 한 번 날아오르기 위한 청사진 그리기에 나서고 있다.

“시대상황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만큼 협회든 제과점이든 변하지 않으면 도태되기 마련이죠. 요즘 우리 중부지회는 젊은 피를 수혈 받아 ‘젊은 지회’ ‘일하는 지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개혁이 한창입니다.”

회원 위한 정보 공유의 장 '중부지회 과우회'

유 지회장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가기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회원 사이의 인화와 단결이다. 이를 위해 회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기술과 경영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만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했다. 지금까지 명맥만 유지해오던 '중부지회 과우회'를 기술개발과 매출향상을 위한 정보의 장으로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도록 새롭게 구성했다.

한 달에 두 번 정기 모임을 갖는 '중부지회 과우회'는 관심 있는 회원이라면 누구나 함께 자리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중부지회는 과우회의 진지한 토론을 통해 얻어진 참신한 아이디어를 지회 운영과 업계 발전을 위해 심분 활용하고 있다.

중부지회가 예전에 비해 훨씬 활동적이고 젊어졌다는 소문이 심심찮게 들려오는 것도 '과우회'의 공이 크다. 지역의 큰 업소와 작은 업소가 한 자리에 모여 친목을 다니는 것만으로도 유 지회장이 강조하는 회원 간의 인화와 단결이 이미 절반은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서울 중부지회는 서울의 중심이자 한국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만큼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새로운 트렌드에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사)대한제과협회 중부지회에서 시작된 변화의 물결은 곧 우리나라 전체 제과업계의 변화로 이어지는 구심점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히딩크식 용병술 따라잡기'를 선언하고 조직 개혁에 나선 중부지회에 업계 전체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첫 번째 이유다. ☎